



SURVIVAL OF THE RICHEST

슈퍼리치의 생존

불평등 해소를 위해 지금 당장
억만장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

요약본



OXFAM
옥스팜

옥스팜 보고서 - 2023년 1월

전 세계가 유례없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억 명의 인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필품 가격과 난방비 상승을 직면하고 있다. 빈곤은 25년 만에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위기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이들도 있다.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고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본 보고서는 현재의 유례없는 다중위기 polycrisis와 심화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부유층 과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근래 역사에서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세율 부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부유층 과세와 억만장자들의 정당한 세금 납부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대중적 호응을 얻었는지, 부유층 과세가 어떻게 기득권을 제한하고 경제, 인종, 성별 불평등과 더불어 과거 식민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불평등까지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최상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러한 세금 인상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부유층 과세가 더욱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빈곤 없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케냐의 세이납(Seinab)이 물을 길기 위해 이시올로현(Isiolo County)에 위치한 댐으로 향하고 있다. 그가 거주하는 지역은 수년간 가뭄을 겪어 왔다.

세이납 가족은 옥스팜의 현금 이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며, 정수 장비를 제공받아 깨끗한 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 Loliwe Phiri/Oxfam

감사의 말

© Oxfam International January 2023

주저자: Martin-Brehm Christensen, Christian Hallum, Alex Maitland, Quentin Parrinello, Chiara Putaturo.

보조저자: Dana Abed, Carlos Brown, Anthony Kamande, Max Lawson, Susana Ruiz.

총괄 책임: Chiara Putaturo.

도움을 주신분들: Nabil Abdo, Nabil Ahmed, Alejandra Alayza Moncloa, Miguel Alba Ruiz-Morales, Pankaj Anand, Ernesto Archila, Esmé Berkhout, Helen Bunting, Anna Byhovskaya, Karla Castillo, Katy Chakrabortty, Roland Chauville, Jacques-Chai Chomthongdi, Chloe Christman, Marc Cohen, Hernan Cortes, Lies Craeynest, Grazielle Custódio, Nadia Daar, Julien Desiderio, Nayeem Emran, Catherine Eyzaguirre Morales, Gustavo Ferroni, Anouk Franck, Jonas Giefeldt, Edward Gillespie, Rod Goodbun, Lea Guerin, Irene Guijt, Matt Hamilton, Victoria Harnett, Ana Heatley Tejada, Franziska Humbert, Ruud Huurman, Didier Jacobs, Tobias Kjær, Iñigo Macías Aymar, Anna Marriott, Mikhail Maslennikov, Kevin May, Carlos Mejia, Ruth Mhlanga, Daniel Mulé, Jefferson Nascimento, Ioan Nemes, Fati Nzi-Hassane, Francis Odokorach Shanty, Léa Pelletier-Marcotte, Marta Pieri, Pravas Ranjan Mishra, Jennifer Reid, Helen Ripmeester, Hanna Saarinen, Manuel Schmitt, Emma Seery, Robert Silverman, Danielle Smith, Peter Struijf, Irit Tamir, Annie Theriault, Ian Thomson, Sarah Vaes, Pubudini Wickramaratne, Deepak Xavier.

국문감수: 주성수 한양대 명예 교수 | 시민사회와 NGO 편집위원장

디자인: Nigel Willmott

옥스팜은 다양한 전문가 분들의 아낌없는 지원에 감사를 표합니다: Mercedes D'Alessandro, Danny Dorling, Jayati Ghosh, Deborah Hardoon, Fatimah Kelleher, Chenai Mukumba, Anthony Shorrocks, Nishant Yonzan, Gabriel Zucman.

본 보고서는 개발 및 인도주의 정책 문제에 대한 공적 토론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dvocacy@oxfaminternational.org

본 보고서는 저작권에 의해 보호를 받습니다. 단, 옹호활동, 캠페인, 교육, 연구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원본의 출처를 밝히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기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이용하는 경우, 영향 평가를 위해 사용의 목적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외의 목적으로 본 보고서를 복사하거나, 타 출판물 내에 재사용, 또는 번역 및 각색하는 경우,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 policyandpractice@oxfam.org.uk

본 출판물에 포함된 정보는 인쇄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합니다.

Published by Oxfam GB for Oxfam International in January 2023.

DOI: 10.21201/2023.621477

Oxfam GB, Oxfam House, John Smith Drive, Cowley, Oxford, OX4 2JY, UK.

표지 사진: © Asian Peoples' Movement on Debt and Development

요약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Elon Musk}에게 적용되는 ‘실질 세율’은 3% 남짓에 불과하다.¹ 한편, 우간다 북부에서 쌀과 밀가루, 콩을 판매하는 시장 상인 에버 크리스틴^{Aber Christine}의 월급은 80달러이지만 40%의 세율을 적용받고 있다.²

슈퍼리치의 생존

우리는 유례없는 다중적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수억 명의 인구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생필품 가격과 난방비 상승을 직면하고 있다. 급격한 기후변화는 경제에 거대한 악영향을 끼치며,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과 태풍, 홍수 등으로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사람들이 속출하고 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미 2천만에 달하는 사망자를 낳은³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영향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빈곤은 25년 만에 최초로 증가세를 보였다.⁴ 한편, 위기 속에서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다.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은 급증했고 기업 이익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로 인해 불평등이 폭발적으로 확대되었다.

- 2020년 이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최상위 1%가 새롭게 창출된 부의 약 2/3를 가져갔으며, 이는 나머지 99%의 2배에 달하는 재산이다.⁵
- 억만장자^{*}의 재산은 매일 27억 달러씩 증가하고 있지만⁶ 전 세계 노동자 중 인도 인구보다 많은 17억 명의 임금 상승률은 인플레이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⁷
- 식품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2022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부유한 주주들에게 2,570억 달러가 지급되었다.⁸ 반면, 8억 명 이상의 사람들은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었다.⁹
- 전체 세수 중 부유세의 비중은 1달러당 4센트에 불과하며,¹⁰ 세계 억만장자 중 절반은 자녀에 대한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국가에서 살고 있다.¹¹
- 수백만 달러 이상의 자산가와 억만장자들에게 최대 5%의 세금을 부과할 경우 매년 1조 7천억 달러의 세수가 창출될 수 있다. 이는 20억 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구하고 기아 종식을 위한 글로벌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 억만장자: 순자산 10억 달러(1조 3천억 원) 이상을 보유한 부자

본 보고서는 현재의 유례없는 다중위기¹³와 심화하는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부유층 과세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부유층 과세가 더욱 평등하고 지속가능하며, 빈곤 없는 세상을 실현할 수 있는 명확한 길을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줄 수 있는지 보여준다.

근래 역사에서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현재보다 훨씬 높은 세율 부과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부유층 과세와 억만장자들의 정당한 세금 납부에 관한 담론이 어떻게 대중적 호응을 얻었는지, 또한 부유층 과세가 어떻게 기득권을 제한하고 경제, 인종, 성별 불평등과 더불어 과거 식민 지배국과 피지배국 간의 불평등까지도 감소시키는지에 대해 고찰한다. 또한, 최상위 부유층이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는지, 이러한 세금 인상을 시행하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되는 실질적이고 검증된 방안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있다.

인류 대부분에게 크나큰 고통을 유발하는 위기의 시대

억만장자, 정부 지도자, 기업 임원들이 스위스 다보스^{Davos}의 높은 산 위에서 개최되는 세계경제포럼WEF에 참석하기 위해 제트기를 타고 모여들고 있다. 반면 세계는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급격하고, 위험하며, 파괴적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위기는 대부분의 인류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며, 옥스팜은 전 세계 현장 속에서 이러한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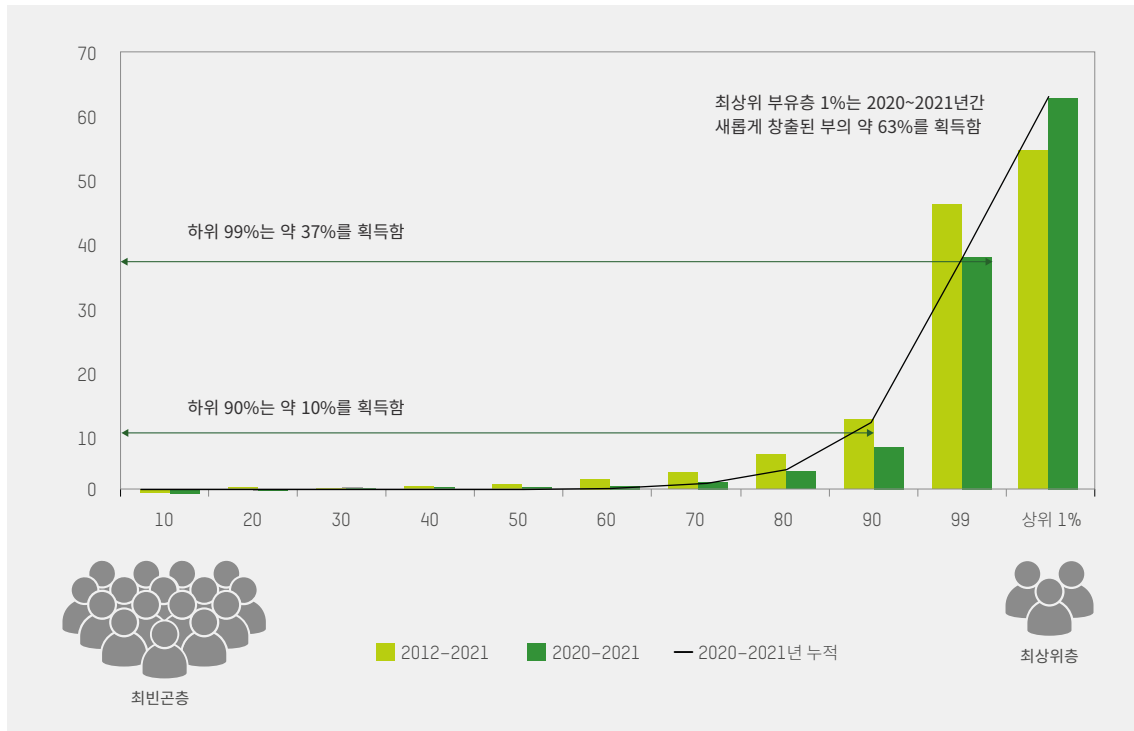
2022년 세계은행은 인류가 2030년까지 극심한 빈곤을 종식하겠다는 목표 실현에 실패할 것으로 전망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래 최대 규모의 불평등 증가와 빈곤 퇴치 퇴행이라는 예측¹⁴과 함께 ‘극심한 빈곤의 감소를 위한 전 세계적 진전이 중단되었다’고 발표했다. 세계통화기금^{IMF}은 2023년 전 세계 국가 중 1/3이 불경기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¹⁵ 유엔개발계획^{UNDP}에 따르면, 사상 최초로 세계 국가의 90%에서 인간개발 수준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¹⁶

옥스팜의 분석에 따르면 전 세계 노동자 중 17억 명의 2022년 임금 상승률이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¹⁷ 식품 구입 및 난방비를 감당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국가에서 도산이 발생하고 있으며, 채무 상환 금액은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팽창하고 있다. 최빈국들은 많은 경우 악랄적이고 부유한 사채업자들에게 보건 부문 지출의 4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 상환에 사용하고 있다.¹⁸ 또한 여러 국가에서 가혹한 수준의 정부 지출 감축을 계획하고 있다. 옥스팜의 추산에 따르면 향후 5년 간 3/4에 달하는 국가 정부가 총 7조 8천억 달러의 지출 감축을 계획 중이다.¹⁹

소수에게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는 위기의 시대

한편, 최상위 부유층이 축적하는 재산의 규모는 이미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증가세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세계적인 다중위기는 소수 기득권층에게 거대한 규모의 부를 안겨주었다. 최근 10년 간 최상위 부유층 1%는 새롭게 창출된 전 세계 부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다.²⁰ 크레디트스위스Credit Suisse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슈퍼리치의 재산 획득은 2020년 이래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으며, 최상위 1%가 차지한 새로운 부의 비중은 전체의 약 2/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위 90%에 해당하는 인구 전체가 획득한 부의 6배가 넘는 규모이다.²¹ 2020년 이래 전 세계 하위 90% 중 한 명이 새롭게 창출된 부에서 1달러를 획득할 때마다 세계 억만장자 중 한 명의 재산은 170만 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²²

그림 1: 새롭게 창출된 부의 획득 비중(전체 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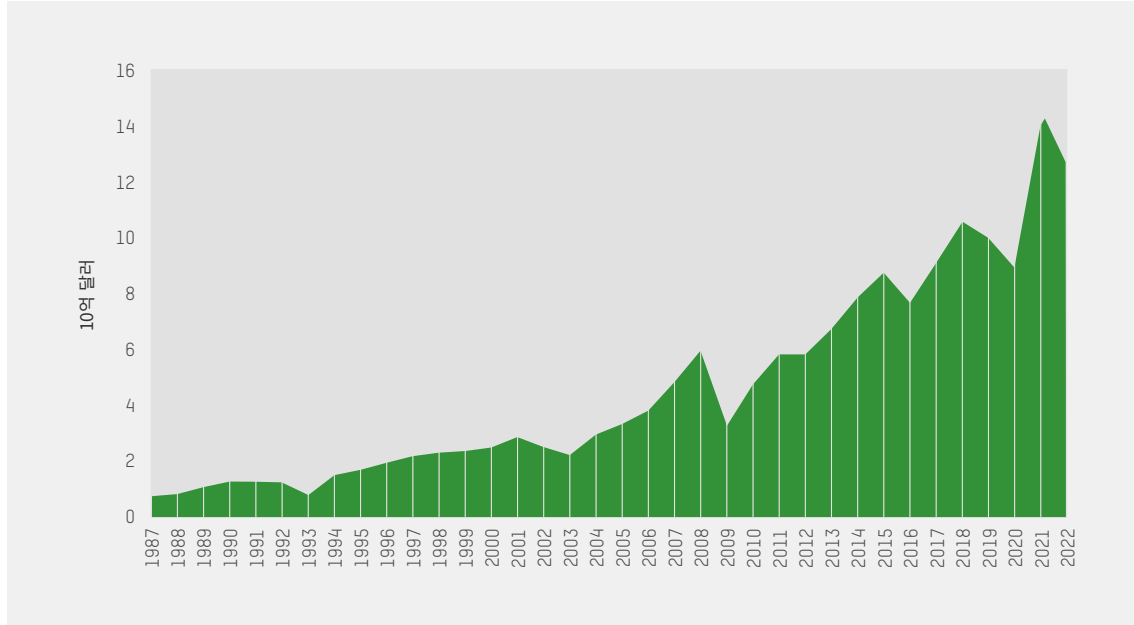
(출처: 크레디트스위스 '세계 부 보고서' Global Wealth Report² 기반 옥스팜의 산출 자료²³)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 억만장자들은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올렸다. 선진국에 의한 대규모 공공자금의 경제 유입은 자국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조치이기도 했으나, 자산 가격과 최상위 부유층의 재산 규모를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즉, 누진세제가 시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슈퍼리치들은 전례 없는 규모의 부를 챙긴 것이다.

억만장자들의 재산 규모는 2021년 고점 이후 약간 감소했으나,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시기 대비 수조 달러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다.²⁴ 위기로 인한 엄청난 기회는 이미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어 온 슈퍼리치의 재산 증식을 더욱 가속화했으며, 부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요소가 되었다.

식품 및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생계비 위기 또한 많은 최상위 부유층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식품에너지 기업들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익을 기록했으며 부유층 주주와 억만장자 소유주에게 막대한 금액을 지급했다. 호주와 미국, 유럽에서 발생한 물가 상승의 50% 이상은 기업의 가격 인상을 통한 폭리 추구로 유발된 것이었으며, 이로 인해 생계비 위지만큼이나 심각한 기업 폭리로 인한 위기가 현실화되었다.²⁵

그림 2: 1987~2022 억만장자 소유 재산의 증가(단위: 10억 달러, 실질 금액 기준)



(출처: 포브스^{Forbes} 세계 억만장자 명단²⁶)

억만장자 탄생은 정책적 실패를 의미함

극심한 부의 집중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정치와 언론을 부패시키며, 민주주의를 잠식하고 정치적 양극화를 부추긴다. 옥스팜의 신규 연구자료에 따르면 최상위 부유층은 급격한 기후변화의 주범이기도 하다. 억만장자의 1인당 탄소 배출량은 전 세계 일반인 평균의 100만 배에 달하며,²⁷ 억만장자들은 화석 연료 등 오염 산업에 투자하는 성향이 일반 투자자 대비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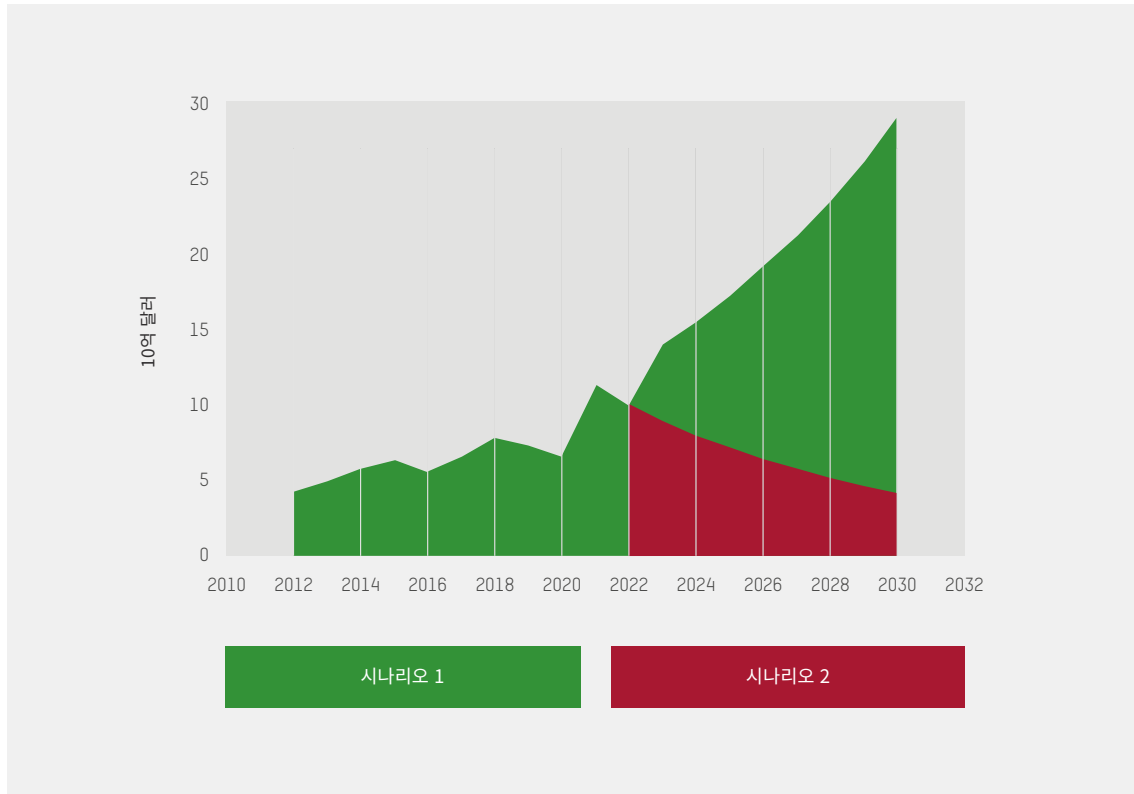
세계 인구의 대부분이 경제적 긴축과 빈곤 및 생계비 위기를 겪는 반면, 억만장자의 수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들이 기록적인 수익을 내는 상황은 그 자체만으로 현재의 경제 시스템이 인류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데 실패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각국 정부와 국제금융기구, 기득권은 소수의 부유층을 위한 세율 감소와 이익 증대가 결국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는 낙수 효과(trickle-down economics)의 허황된 이론을 근거로 장기간 세계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었다. 낙수효과는 실질적 근거가 전혀 없는 허상에 불과하다.

낙수효과는 이론인 동시에 경제 시스템이기도 하다. 문제는 이로 인해 인류가 새로운 위기의 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수단, 심지어는 상상력마저 부재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점이다. 낙수효과 경제의 신빙성은 광범위하게 부정되고 있으나, 여전히 세계 지도자들의 경제적 사고를 독점하고 있다. 물론 낙수효과 기반 경제를 통해 지속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얻는 사람들도 있다. 주로 글로벌 북반구(global north)에 사는 부유한 백인 남성으로 구성된 최상위 소수가 이러한 경제 시스템의 수혜자이다.²⁹

이미 그 유효성이 부정되었음에도 억만장자들의 재산 축적 순환은 끝없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법, 공공자산 민영화, 경영진 최고액 보수 등을 포함해 부유층에게 혜택을 주는 왜곡된 경제 시스템에 맞선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 위에 언급된 모든 사항에 대해 조치가 필요하지만, 옥스팜은 특히 막대한 영향력이 예상되는 주요 해결책 중 하나인 ‘부유층 과세’를 중점적으로 조명하고자 한다. 이는 부의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시작점으로, 전 세계가 최상위 1%에 대한 증세와 더불어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타 정책의 도입을 통해 2030년까지 억만장자의 수와 이들의 재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실현되면 전 세계 억만장자의 수와 이들의 부는 2012년 수준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부에 대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분배의 일환으로 모든 억만장자가 사라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조세는 이러한 비전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이며, 변화는 부유층과 기업에 수십 년 간 적용되었던 세금 감면책을 과감히 중단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그림 3: 현재~2030년 억만장자의 부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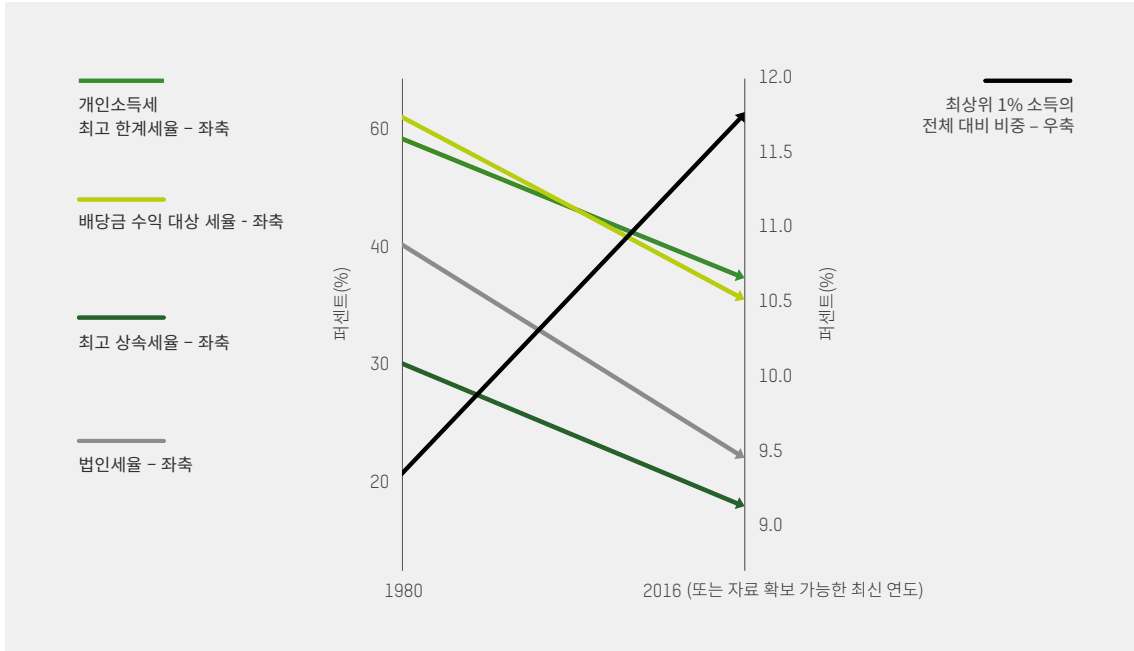


(출처: 포브스 세계 억만장자 명단 기반 옥스팜의 산출 자료³⁰. 그림 3은 두 가지 시나리오를 보여준다.

시나리오 1에서는 억만장자들의 부가 지난 10년과 같은 속도로 증가한다. 시나리오 2는 세금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이들의 부가 10년 전 수준으로 감소한 상황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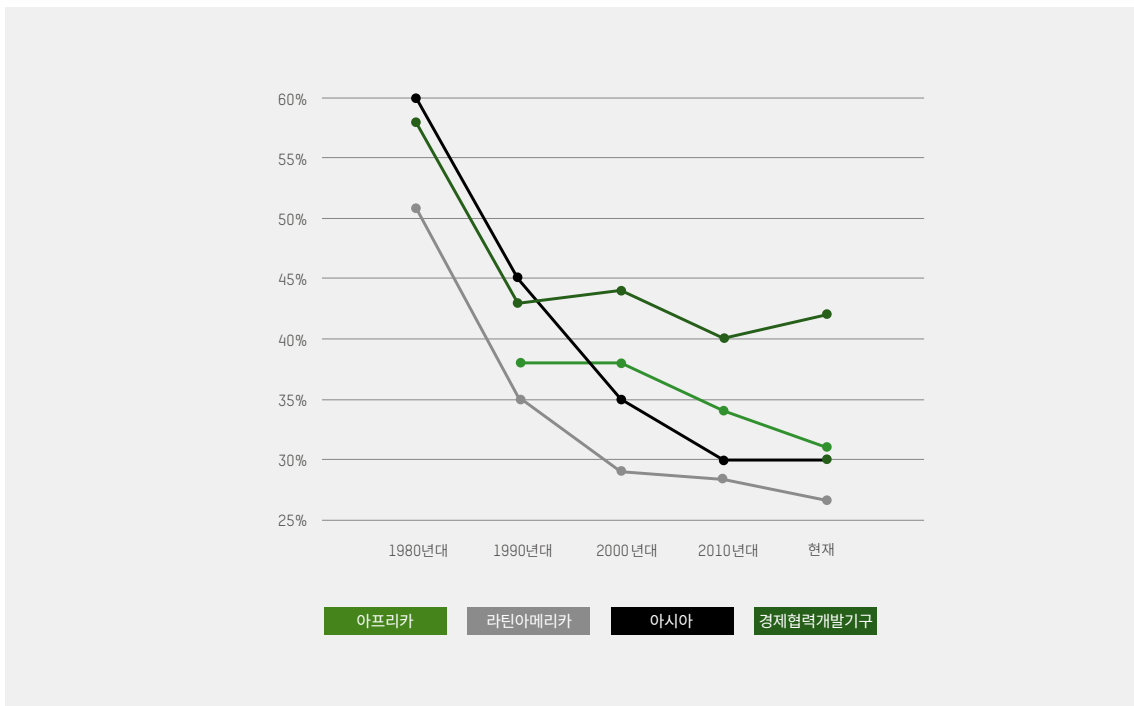
그림 4: 선진국에서의 부유층 세율 인하는 최상위 1% 소득 비중의 증가와 시기적으로 일치함



(출처: 세계불평등연구소 World Inequality Lab, 국제통화기금, 경제협력개발기구, Scheve and Stasavage 자료(2016) 기반 옥스팜의 산출 자료³¹)

최상위 계층의 부와 소득의 막대한 증가는 가장 부유한 1%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실패와 함께 나타났다. 국가 간 차이는 있으나 부유층 감세 추세는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현저히 유사했다.

그림 5: 부유층 대상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출처: 경제협력개발기구 통계,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오디오아이^{ODI} 자료 기반 옥스팜의 산출 자료³²)

- 현재 징수되는 세금 1달러 당 부유세의 비중은 4센트에 불과하다.³³ 부에 대한 세금 부과와 실패는 심각한 불평등이 존재하는 저소득 및 중소득 국가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³⁴
- 전 세계 국가 중 2/3는 직계 자손에게 부와 자산을 세습하는 행위에 대해 어떠한 형태의 상속세도 적용하지 않는다.³⁵ 세계 억만장자의 절반은 상속세가 없는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아프리카 전체 GDP보다 큰 5조 달러의 재산이 세금 부과 없이 다음 세대로 이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새롭고 강력한 세습귀족 제도^{aristocracy}가 우리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다.
- 최고 소득세율은 지속적으로 낮아졌으며, 누진성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OECD 국가의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평균 세율은 1980년 58%에서 최근 42%로 하락했다. 10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평균 세율은 더욱 낮은 수준인 31%로 나타났다.³⁷
- 대부분의 국가에서 최상위 1%의 가장 중요한 소득원인 자본소득에 대한 100개국 이상의 평균 세율은 18%에 불과하다. 근로소득세율보다 자본소득세율이 높은 국가는 3개국에 불과하다.³⁸

최상위 부유층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이들 중 다수가 대부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리치 중 한 명인 일론머스크 중 한 명인 일론 머스크에게 적용되는 ‘실질 세율’은 3.2%에 불과하며,³⁹ 또다른 억만장자인 제프 베이조스^{Jeff Bezos}에게는 1% 미만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⁴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간다에서 옥스팜과 협력하고 있는 시장 상인 중 한 명인 에버 크리스틴은 소득의 40%를 세금으로 납부했다.⁴¹

박스 1: 과거 모범 사례 - 미국의 최고 세율이 90%이던 시절

과거에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세율이 현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었다. 미국의 경우 1951~1963년 연방 개인소득세 최고 한계세율은 91%에 달했다. 최고 상속세율은 1975년까지 77%였으며, 1950~60년대 법인세는 평균 50%를 상회하는 수준이었다.⁴² 다른 선진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세율을 시행했다. 높은 세율의 적용은 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폭넓은 지지를 받았으며, 세계 역사상 가장 성공적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시기와도 일치한다.

부유층 과세는 불평등 종식과 다중위기 대응을 위한 가장 전략적인 수단

부유층 및 기업에 대한 증세는 현재의 다중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출구를 열어 준다. 경제적 긴축 방지와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대응에 활용될 수 있으며, 인류가 겪지 않아도 되는 잔혹한 대규모 공핍과 기근을 피할 수 있다.

증세는 성공적이고 전략적인 정부 구축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보편적 의료와 교육, 더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 실현, 혁신과 연구 개발, 녹색경제로의 전환, 급격한 기후변화 대응에 투자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정부에게 제공한다.

옥스팜은 정책연구소^{Institute for Policy Studies}, 애국하는 백만장자^{the Patriotic Millionaires}, 불평등 투쟁연맹^{Fight Inequality Alliance}과 함께 Wealth-X와 포브스의 자료를 활용하여 전 세계 백만장자에게 2%, 5천만 달러 이상 자산가에게 3%, 억만장자에게 5%의 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매년 1조 7천억 달러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억 명의 인구를 빈곤에서 구하기에 충분한 금액이다. 또한 유엔의 긴급 인도주의 요청에 대한 지원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 부족분을 확보하고, 기후 종식을 위한 글로벌 계획에 대한 재원을 조성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다. 더 나아가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저소득 및 중저소득 국가에서 발생한 손실과 피해를 복구하고, 이러한 국가에서 생활하는 36억 명에 달하는 시민을 위한 보편적 의료와 사회보장을 실현할 수 있다.⁴³

슈퍼리치에 대한 세금 부과는 최상위 부유층의 수와 이들의 재산을 줄이는 직접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더욱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고, 권력을 쥐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준 세습귀족 엘리트층의 출현을 방지한다.

과거 전 세계적인 위기가 발생했을 때, 사회적 연대의 정신에 입각하여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증세가 시행되었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에는 이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전 세계 국가 중 95%는 부유층과 기업 대상 세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심지어 인하하기도 했다.⁴⁴

변화하는 흐름

현재의 다중위기는 마침내 기존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뒤엎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헤쳐 나가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유층 증세의 정당성은 과거의 정치적 분열을 넘어 점점 광범위하게 제시되고 있으며, 지지를 예상하지 않았던 세계통화기금과 유럽중앙은행ECB 등도 이에 동참하고 있다. 2022년 10월, 정치 경제적 위기 발생 후 영국 정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수많은 부유층 감세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사건은 진정한 전환점이 되었다.⁴⁵

부유층과 기업 감세 정책의 기반이 되었던 수십 년 간의 공감대에 가시적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의 적극적인 행동 없이는 과거의 낡은 벽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사실 부자 감세는 결코 대중의 요구에 의해 추진된 조치가 아니었다. 여러 국가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부유층 증세는 필요하며 상식적인 조치로 오랜 기간 인식되어 왔다(박스 2 참조). 이러한 변화를 실현하기 위해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사상 최저 세율 정책을 추진해왔던 정치적 논리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스 2: 부유층 과세 - 부유층을 비롯해 광범위한 지지 확보

대다수의 사람들이 부유층 과세를 지지하고 있음이 지속적으로 입증되었다.⁴⁶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에서는 사상 최초로 지난 10년간 미국 시민 중 과반수가 '정부는 부유층 중과세를 통해 부를 재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⁴⁷ 인도 시민의 부유층 증세 찬성 비율은 80%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⁴⁸ 브라질 시민 중 85%가 필수 서비스 재원 마련을 위한 슈퍼리치 증세에 찬성하고 있다.⁴⁹ 아프리카 34개국의 경우, 응답자 69%가 '빈곤층에 혜택을 제공하는 정부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유층에게 일반 시민보다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견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⁵⁰

슈퍼리치 또한 증세를 지지한다. 2022년 1월, 100명 이상의 백만장자들이 세율 인상 촉구 서한에 서명한 바 있다.⁵¹

현재의 새로운 위기에 직면한 인류는 코로나19의 사례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전 세계 국가 정부는 최상위 부유층에 대한 급진적 증세를 시행해야 한다.

새로운 상식을 구축할 때

보다 공정한 세계를 구축하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경제를 재검토 및 재창조하고 새로운 목적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특히, 부유층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이러한 세금이 보편적 의료와 교육과 같은 권리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에 기여했던 과거 역사의 교훈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한다.

불평등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다. 불평등은 정책적 선택이다. 정부는 불평등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 보호를 위한 자급력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명확하고 구체적인 실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긴축 정책을 통해 국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는 대신, 국민이 위기를 안전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최상위 부유층은 어느 정도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

옥스팜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최상위 1% 부유층에게 최소 60%, 수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와 억만장자에게는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세금 제도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는 부유층의 노동 및 자본 투자로 발생한 총소득에 60%의 세율을 부과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전 세계 100개국에서 시행 중인 최상위 소득자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평균 31%를 최소 2배로 올리고, 123개국 평균 18%에 불과한 자본소득세율을 4배로 높여야 한다.⁵² 부유층 개인소득에 대한 60% 이상의 한계세율 적용은 20세기 대부분 기간 동안 사회적 규범으로 시행되었다.⁵³ 기업 경영진에게 초과액 보수를 제공할 동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수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와 억만장자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에게 75% 이상의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포괄적 소득세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근로소득세와 같거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자본소득세가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본소득은 부유층 소득의 가장 중요한 원천이며, 현재 대다수 국가에서 자본소득 세율은 근로소득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자금 투입으로 인해 슈퍼리치가 획득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일회성 연대 부유세^{one-off solidarity wealth taxes}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또한 영구 부유세 도입도 필요하며, 슈퍼리치의 수를 줄이기에 충분한 수준의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지난 5년간 억만장자의 재산을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시키고자 했다면 정부는 매년 12.8%의 세금을 부과했어야 한다.⁵⁴ 과세만으로는 억만장자와 수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의 수를 줄일 수 없다. 현재와 같은 극심한 부의 불평등을 애초에 유발하지 않는 경제를 구축하기 위한 다른 조치들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유세는 여전히 불평등 해소를 위한 핵심적 조치가 될 수 있고, 핵심적 조치로 시행되어야 한다.

부유세에는 부동산과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을 강화하는 조치도 포함되어야 한다. 불평등이 다세대에 걸쳐 영속화되고 새로운 세습귀족제가 탄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높은 상속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순부유세^{net-wealth taxes}의 도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는 부유층 과세를 실행할 때

부유층 중세가 불평등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적 요소임은 틀림없다.

정부는 실패한 이데올로기와 부유층 엘리트의 수십년 간의 영향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제는 올바른 행동, 바로 부유층 과세를 실행에 옮길 때이다.

새롭게 추진되는 누진세 제도를 통해 확보된 세수는 모두를 위해 더 공정하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를 구축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불평등의 흐름을 되돌리기 위해 정부는 조세 수단을 재량껏 운용해야 하며, 더 평등한 세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아래 네 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일회성 연대 부유세 및 기업 대상 횡재세^{windfall tax} 도입과 더불어, 위기를 악용한 폭리 추구를 종식하기 위해 배당금 지급에 대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2. 최상위 1% 부유층의 근로소득세율 및 자본소득세율을 영구적으로 최소 60%까지 인상해야 하며, 수백만 달러 이상 자산가와 억만장자에게는 더욱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3. 극심한 부와 권력의 집중 및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세율을 슈퍼리치의 부에 적용해야 한다.
4. 증세로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식량안보 등 불평등 해소 부문^{inequality-busting sector}에 대한 정부 지출을 확대하고, 저탄소 세계를 향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Notes

- 1 ProPublica. (2021, June 8). *The Secret IRS Files: Trove of Never-Before-Seen Records Reveal How the Wealthiest Avoid Income Tax*. <https://www.propublica.org/article/the-secret-irs-files-trove-of-never-before-seen-records-reveal-how-the-wealthiest-avoid-income-tax>
- 2 Source: Oxfam in Uganda, Fiscal Justice for Women and Girls project.
- 3 *The Economist*. (2022, December 12). *The pandemic's true death toll: Our daily estimate of excess deaths around the world* [paywall]. Accessed 12 December 2022. <https://www.economist.com/graphic-detail/coronavirus-excess-deaths-estimates>
- 4 While extreme wealth has been rising for many years (see Section 1.1), extreme poverty had been consistently falling. This changed with COVID-19, which marked the first increase in extreme poverty globally in over two decades. World Bank. (2022).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Correcting Course*. <https://openknowledge.worldbank.org/bitstream/handle/10986/37739/9781464818936.pdf>
- 5 See methodology note, stat 1.5.
- 6 See methodology note, stat 1.6.
- 7 See methodology note, stat. 1.15. The population of India is 1.39bn. Source: World Bank data. Population, total – India. Available at: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locations=IN>
- 8 See methodology note, stat 2.1
- 9 FAO, IFAD, UNICEF, WFP and WHO. (2022). *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2: Repurposing food and agricultural policies to make healthy diets more affordable*. Rome: FAO. <https://doi.org/10.4060/cc0639en>
- 10 See methodology note, stat 3.4.2.
- 11 See methodology note, stat 3.14.
- 12 See methodology note. stat. 3.22.
- 13 A global polycrisis occurs when crises in multiple global systems become causally entangled in ways that significantly degrade humanity's prospects.
- 14 World Bank. (2022). *Poverty and Shared Prosperity 2022: Correcting Course*, op. cit.; and World Bank. (2022, October 5). *Global Progress in Reducing Extreme Poverty Grinds to a Halt*. Press release. <https://www.worldbank.org/en/news/press-release/2022/10/05/global-progress-in-reducing-extreme-poverty-grinds-to-a-halt>
- 15 Gourinchas, P-O. (2022, October 11). *Policymakers Need Steady Hand as Storm Clouds Gather Over Global Economy*. IMF blog.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22/10/11/policymakers-need-steady-hand-as-storm-clouds-gather-over-global-economy>
- 16 UNDP. (2022). *Human Development Report 2021–2022*. <https://hdr.undp.org/content/human-development-report-2021-22>
- 17 See methodology note, stat 1.15.
- 18 Oxfam. (2022, November 14). *G20 must tackle the "cost of profit" crisis causing chaos worldwide*. Press release.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g20-must-tackle-cost-profit-crisis-causing-chaos-worldwide#:~:text=In%202021%2C%20on%20average%2C%20poor,G20%2C%20are%2071%25%20loans>.
- 19 Walker, J., et al. (2022). *The Commitment To Reducing Inequality Index 2022*. Oxfam and Development Finance International. DOI: 10.21201/2022.9325. <https://policy-practice.oxfam.org/resources/the-commitment-to-reducing-inequality-index-2022-621419/>
- 20 See methodology note, stat 1.2.
- 21 See methodology note, stat 1.5.
- 22 See methodology note, stat 1.4.
- 23 See methodology note, stat 1.0.
- 24 See methodology note, stat 1.14
- 25 Bivens, J. (2022, April 21). *Corporate profits have contributed disproportionately to inflation. How should policymakers respond?* Economic Policy Institute. Working Economics Blog. <https://www.epi.org/blog/corporate-profits-have-contributed-disproportionately-to-inflation-how-should-policymakers-respond/>; Unite. (2022). *Unite Investigates: Corporate profiteering and the cost of living crisis*. Data refers to October 2021–March 2022. <https://www.unitetheunion.org/media/4757/unite-investigates-corporate-profiteering-and-the-col-crisis.pdf>; and The Australia Institute. (2022, July 18). *Profits Causing Inflation in Australia, Not Wages: European Central Bank & ABS Data Reveal*. <https://australianinstitute.org.au/post/profits-causing-inflation-in-australia-not-wages-european-central-bank-abs-data-reveal/>
- 26 Dolan, K.A. and Peterson-Withorn, C (eds). (2022). *Forbes World's Billionaires List: The Richest in 2022*. <https://www.forbes.com/billionaires/>.
- 27 Maitland, A., et al. (2022). *Carbon Billionaires: The investment emissions of the world's richest people*. Oxfam. DOI: 10.21201/2022.9684. <https://policy-practice.oxfam.org/resources/carbon-billionaires-the-investment-emissions-of-the-worlds-richest-people-621446/>
- 28 Ibid.
- 29 See methodology note, stats 1.10 and 1.11.
- 30 See methodology note, stat 3.9.
- 31 See methodology note, stat. 3.1.
- 32 See methodology note, stat 3.2.
- 33 See methodology note, stat 3.4.2.
- 34 See methodology note, stat 3.23.

- 35 See methodology note, stat 3.15.
- 36 See methodology note, stat 3.14.
- 37 See methodology note, stats 3.2 and 3.8.
- 38 See methodology note, stat 3.12.
- 39 ProPublica. (2021, June 8). *The Secret IRS Files*, op. cit.
- 40 Ibid.
- 41 Source: Oxfam in Uganda, op cit.
- 42 Saez, E. and Zucman, G. (2019). *The Triumph of Injustice: How the Rich Dodge Taxes and How to Make Them Pay*.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43 See methodology note, stat 3.22.
- 44 Oxfam. (2022, Oct 11). *New index shows governments worldwide stoked an inequality explosion during COVID-19 pandemic*. Press release.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new-index-shows-governments-worldwide-stoked-inequality-explosion-during-covid-19#:~:text=The%202022%20Commitment%20to%20Reducing%20Inequality%20\(CRI\)%20Index%20is%20the,161%20governments%20during%202020%E2%80%932022](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new-index-shows-governments-worldwide-stoked-inequality-explosion-during-covid-19#:~:text=The%202022%20Commitment%20to%20Reducing%20Inequality%20(CRI)%20Index%20is%20the,161%20governments%20during%202020%E2%80%932022).
- 45 Walker, P., Crerar, P. and Mason, R. (2022, October 14). *Liz Truss sacks Kwasi Kwarteng before corporation tax U-turn*. *The Guardian*. <https://www.theguardian.com/politics/2022/oct/14/liz-truss-press-conference-u-turn-corporation-tax-kwasi-kwarteng>
- 46 McCloskey, E. (2022, October 5). *Taxing the rich is really, really popular...everywhere*. Patriotic Millionaires blog. <https://patrioticmillionaires.org/2022/10/05/taxing-the-rich-is-really-really-popular-everywhere>
- 47 Newport, F. (2022, August 12). *Average American Remains OK With Higher Taxes on Rich*. Gallup Polling Matters blog. <https://news.gallup.com/opinion/polling-matters/396737/average-american-remains-higher-taxes-rich.aspx>
- 48 Fight Inequality Alliance. (2022, Jan 27). *Every 8 out of 10 Indians want tax on the rich & companies profited during pandemic: Fight Inequality Alliance survey*. Press release. <https://www.fightinequality.org/news/every-8-out-10-indians-want-tax-rich>
- 49 Oxfam Brasil. (2022, September 14). *Brasileiros defendem impostos sobre mais ricos para financiar renda e assistência social a quem mais precisa*. Press release [Portuguese]. <https://www.oxfam.org.br/noticias/brasileiros-defendem-impostos-sobre-mais-ricos-para-financiar-renda-e-assistencia-social-a-quem-mais-precisa/>
- 50 Isbell, T. (2022). *Footing the bill? Less legitimacy, more avoidance mark African views on taxation*. Afrobarometer. <https://www.afrobarometer.org/wp-content/uploads/2022/02/pp78-pap6-less-legitimacy-more-avoidance-mark-africans-views-on-taxation-afrobarometer-policy-paper-28jan22.pdf>
- 51 Oxfam. (2022, January 19). *Over 100 millionaires call for wealth taxes on the richest to raise revenue that could lift billions out of poverty*. Press release. <https://www.oxfam.org/en/press-releases/over-100-millionaires-call-wealth-taxes-richest-raise-revenue-could-lift-billions>
- 52 See methodology note, stats 3.8 and 3.12.
- 53 See examples in section 2.1 in the full report.
- 54 See methodology note, stat 3.17.

OXFAM

옥스팜은 빈곤으로부터 자유로운 미래를 만들기 위한 변화를 이끄는 글로벌 운동의 일환으로, 90여 개국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연결된 21개 조직의 국제적인 연합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www.oxfam.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Oxfam America (www.oxfamamerica.org)
Oxfam Aotearoa (www.oxfam.org.nz)
Oxfam Australia (www.oxfam.org.au)
Oxfam-in-Belgium (www.oxfamsol.be)
Oxfam Brasil (www.oxfam.org.br)
Oxfam Canada (www.oxfam.ca)
Oxfam Colombia (lac.oxfam.org/countries/colombia)
Oxfam France (www.oxfamfrance.org)
Oxfam GB (www.oxfam.org.uk)
Oxfam Germany (www.oxfam.de)
Oxfam Hong Kong (www.oxfam.org.hk)
Oxfam IBIS (Denmark) (www.oxfamibis.dk)
Oxfam India (www.oxfamindia.org)
Oxfam Intermón (Spain) (www.oxfamintermon.org)
Oxfam Ireland (www.oxfamireland.org)
Oxfam Italy (www.oxfamitalia.org)
Oxfam Mexico (www.oxfammexico.org)
Oxfam Novib (Netherlands) (www.oxfamnovib.nl)
Oxfam Québec (www.oxfam.qc.ca)
Oxfam South Africa (www.oxfam.org.za)
KEDV (www.kedv.org.tr)



OXFAM
옥스팜